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2호 [주제 제 25345호] 주제 105 (2016)년 7월 20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 발사훈련을 지도 하시였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비범한 정도의 손길 아래
강대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세, 주체조선의 막강한
국력이 만천하에 힘 있게
파시 되고 천리방선초소
마다에 총정의 200일전
투를 전투력강화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여나가기 위한
백두산훈련열풍이 더욱 세
차게 휘몰아치고 있는 속에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
발사훈련이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
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
하시였다.

리만건동지, 리병철
동지, 홍승무동지, 김정식



철저히 준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동력이나 타격력
에 있어서 언제 봐도 정확
하고 치밀하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는 통행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핵무기연구부문의 과학
자, 기술자들, 조선인민군
전략군 지휘성원들에 개
핵공격체계가동의 신속성
과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
하고 주체적인 화력타격
전법을 더욱 완성하며
다양한 탄도로케트들을
개발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훈련지도를 받은 조선인민
군 전략군 장병들은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훈련장
들을 찾고 찾으시며 전략군
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동지를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핵무기연구부문의 과학
자, 기술자들이 통행하였다.

어둠도 채 가서지지 않은 이른새벽
발사훈련장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게 된 화성포병들의 피끓는 심장마
다에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뜨거운 체취가
어려있는 무적의 화성포로 전쟁평신자들
을 불이 번쩍 나게 탑세기고 단숨에
통일의 대업을 이룩할 결사의 각오가 활
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관인 전략군대장
김락겸동지, 정치위원 전략군중장 박영
래동지가 맞이하였다.

발사훈련에는 남조선주둔 미제침략군
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조선
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참가하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략군
사령관 김락겸대장을 비롯한 지휘성원
들과 함께 발사장을 돌아보시며
탄도로케트발사훈련준비정형을 직접
로해하시고 발사계획을 청취하신 다음

훈련을 시작할 때 대한 명령을 내리시
였다.

천둥같은 폭음이 대지를 뒤흔드는 속에
거대한 불줄기들을 뿜으며 탄도로케트들
이 침착히 날아올라 푸른 하늘가에 원쑤
격멸의 비행운을 자랑차게 새기었다.

이번 발사훈련은 미제의 핵전쟁장비
들이 투입되는 남조선작전지대 안의
항구, 비행장들을 선제타격하는 것으로
모의하여 사거리 를 제한하고 진행하였
으며 목표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
로케트에 장착한 핵탄두 폭발조종장치

의 동작특성을 다시 한번 검열하였다.
온갖 로고와 실형을 다 바치고 계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숭고한
뜻을 짐작깊이 새기고 조성된 엄중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모든 핵타격수단들
을 항시 적인 발사대기 상태에 두고
만단의 결전진입태세를 갖춤으로써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전체 조선인민의 멸적의 의지를 담아
가증스러운 원쑤들의 정수리에 즉시적
이고 무자비한 섬멸적핵세례를 안기고아
말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